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변인 및 가설
4. 연구의 제한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다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는 자신의 삶의 가치와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구나 청소년의 경우 정상적인 사회적 발달을 위해서는 원만한 또래관계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또래관계를 통해 자신이 누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무엇을 하고 혹은 하지 말아야 할지 등에 대한 비판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또래들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과 태도, 느낌, 감정 등에 대해 사회심리적으로 타인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이는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체성을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최근들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이나 ‘왕따’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은 매우 증폭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집단 따돌림’현상은 그 양상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생 빈도에 있어서도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 발생 빈도에서의 심각성 정도는 최근에 이루어진 ‘집단 따돌림’에 관한 몇 개의 실증적 연구(박경숙 외, 1998; 김문조, 1999; 박진생, 1999; 손충기 외, 1999; 이춘재 외, 1999; 최충욱, 1999) 결과를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박진규(1999)에 의하면 그 양상에 있어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밝혀진 ‘집단 따돌림’ 현상은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인간관계에서만 타나나는 예외적인 사회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 여러 영역에 걸쳐 만연되어 있는 일반적인 사회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집단 따돌림’ 현상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행동하면서 자신의 또래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또래 집단은 그 구성원에게 고유한 안정감과 지지를 부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불확실한 자의식에 편안함을 주며 또한 또래집단 내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규범과 가치를 발달시킨다.

특히, 청소년들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지며, 또한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청소년 자신을 다양한 상호작용 안에서 하나의 사회적인 관계 내에 존재하는 유기체로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스포츠 참가는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의 인격발달 및 사회심리적 가치 함양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집단 생활에서 요구되는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즉 스포츠 참가는 청소년들을 도덕적, 인격적으로 성숙시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간을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스포츠 활동을 통해 체득한 가치 예를 들면 스포츠맨십, 준법정신, 자아실현, 협동, 우애, 예의 등을 내면화 시킴으로써 우호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해준다. 이렇게 형성된 건전하고 건강한 또래문화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청소년을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육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

한편, 개인의 인간성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순

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맺게 하는 의사소통 역시 또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의사소통은 인간의 감정, 느낌, 태도, 생각, 사상 등의 메시지를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하여 상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받는 매개체(김삼현, 1997)로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대인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자기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기 이해의 부족, 대인관계에서의 실패나 좌절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인지로 인해 또래관계에서 위축되거나 왜곡된 적응양상을 보이기 쉬운(Powell, 1965; Gurney, 1977) 청소년기에서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를 대인관계 발전의 시작단계로 본다면 사회적 기술로서 관계의 시작, 지속 그리고 증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의사소통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스포츠활동 경험은 집단 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 태도, 신념 등을 다른 성원들과 의사소통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가 속한 집단의 문화와 행동양식을 학습하게 한다. 즉, 청소년들은 스포츠활동을 통해 또래들과 협동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를 맺음은 물론 사회생활의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내면화시켜 줌으로써 타인과의 상호협조, 협동성, 사교성, 책임성, 자율성 등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경험이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가 전반적인 대인관계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올바른 청소년 교육의 정립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인에 따른 스포츠 참가정도 및 유형과 의사소통 그리고 또래관계의 차이

둘째,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른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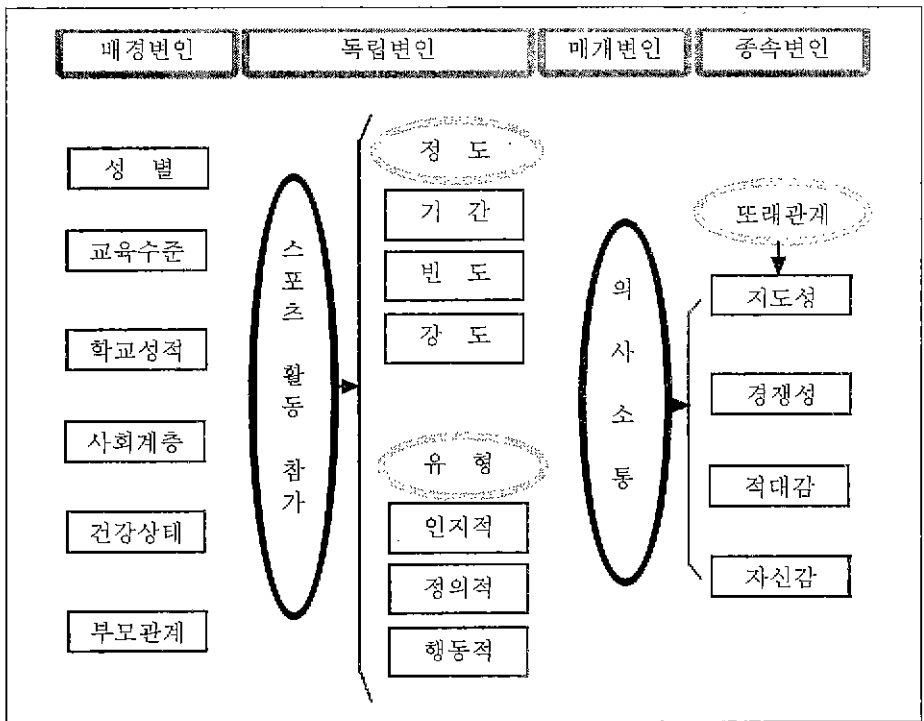
셋째, 스포츠 참가정도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넷째, 스포츠 참가유형이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다섯째, 청소년의 의사소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3. 변인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 정도와 참가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의사소통을 매개변인으로 그리고 또래관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관계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 1> 스포츠 참가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 모형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설정한 변인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배경변인에 따라 스포츠 참가 정도 및 유형 그리고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라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1.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라 의사소통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2-2.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라 또래관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스포츠 참가 정도는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 스포츠 참가 정도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 스포츠 참가 정도는 또래관계의 지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3. 스포츠 참가 정도는 또래관계의 경쟁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4. 스포츠 참가 정도는 또래관계의 적대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5. 스포츠 참가 정도는 또래관계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스포츠 참가 유형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1. 스포츠 참가 유형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2. 스포츠 참가 유형은 또래관계의 지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3. 스포츠 참가 유형은 또래관계의 경쟁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4. 스포츠 참가 유형은 또래관계의 적대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5. 스포츠 참가 유형은 또래관계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청소년의 의사소통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1. 청소년의 의사소통은 또래관계의 지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2. 청소년의 의사소통은 또래관계의 경쟁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3. 청소년의 의사소통은 또래관계의 적대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4. 청소년의 의사소통은 또래관계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2000년 8월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의 정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즉 스포츠 참가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는 통제된 선행변인 이외의 외생변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의사소통
2. 청소년과 또래관계
3. 청소년의 스포츠참가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의사소통

인간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내적 긴장의 완화, 소속감의 획득, 상대방과의 관계 확립 혹은 관계 확인에 의해 안정감을 획득할 수 있으며, 또한 상대방과의 접촉에 의해 정서적 안정 및 만족을 얻으며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분을 전환할 수도 있다(고영복, 1977). 즉 의사소통은 인간에게 있어서 함께 느낌을 나누고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나가서는 사회를 공동사회로 만드는 상호관계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중요한 정신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정경섭, 1993).

다시말해 의사소통이란 인간의 감정, 느낌, 태도, 생각 등의 메시지를 언어적, 비언어적 수단을 통하여 상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받는 매개체로서 대인관계의 순환적인 과정 및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과정으로 인간사회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효율적인 인간상호간의 접촉을 유지시킴으로써 가정에서는 가족원들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성인 사회에서는 서로의 정보교환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청소년의 사회화와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정유미, 1997).

한편 Yoder(1965)는 의사소통을 사상, 아이디어, 정보, 의견 및 지식 등을 상호교환하는 과정이라 하였으며, Theodorson과 Theodorson(1969)은 개인이나 집단이 주로 상징을 통해 정보나

사상, 태도 혹은 감정을 다른 개인 또는 집단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Sereno와 Bodaken(1975)에 의하면 의사소통이란 참여자들간의 역동적이고 동시적인 상호교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의 참여자들이 끊임없이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도시에 수용하는 상호 복합적인 작용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혹은 청소년들이 같은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문화속으로 자연스럽게 융화되기 위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또래들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그들의 욕구나 감정을 나누고 구성원간의 역할이나 규칙을 학습할 뿐 아니라, 개인의 인격 발달과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완전한 청소년들에게 인간관계의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을 통하여 같은 또래들과의 생산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Kennedy(1990)의 연구에서도 정신적으로 성숙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같은 또래들과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으며 늘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청소년과 또래관계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보다

는 자기와 연령이 비슷한 또래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보내려 한다.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 또래집단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통적인 경험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 줄 뿐 아니라 청소년 개인의 문제해결과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택호·김인규(1999)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91.8%가 또래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또래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어, 청소년기에 있어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즉 또래집단은 가정 이외의 외부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또래집단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또래집단은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보장을 해주며 자신감을 심어 줄 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규범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또래들로부터 호감과 인기를 얻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며,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이들의 노력을 도와주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또래집단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경우 개인에게 돌아올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또래들로부터 소외당한 어린 학생들은 정상적인 심리적 발달에 큰 손상을 입게되며, 사회적 연결망과의 단절을 받게되고, 심할 경우 비행, 음주 등 다른 형태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청소년기가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지기도 한다.

Sullivan(1953)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자기가 선택한 또래와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능숙하고 센스있는 삶의 파트너가 되는 것을 배운다고 강조하면서, 청소년이 자기중심의 세계에서 벗

어나 타인을 이해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 또래친구와의 관계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Bukowski와 Hoza(1989)는 또래친구는 성숙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주고, 청소년 자신이 주위로부터 사회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서 안정된 정서를 갖게 도와 주며, 자아개념의 발달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백인선(1986)의 연구에서도 동료들에 의해 지각된 사회적 행동과 인기를 관련시켜 본 결과 수용도가 높은 청소년은 우호적, 동조적인 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며, 배척받은 정도가 높은 청소년은 공격적, 성인 의존적, 비동조적, 독립적인 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때, 청소년기에 있어서 또래집단에 의한 평가는 청소년 개인의 성장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간관계가 급격히 확대되는 청소년 또래관계의 특성은 그들의 상호의존이 자발성에 기초하면서 수단적이라기 보다는 사회정서적인 것이며, 청소년들은 또래들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또래집단에 대한 강한 동조 경향을 지니며, 자신들의 또래관계를 부모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독립과 자율의 욕구가 강해지는 청소년들의 위계적이며 종적인 가족관계로부터 벗어나 좀더 자유롭고 상호 대등한 수평적 인간관계를 원칙으로 하는 또래들과의 관계를 선호하며 이러한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구분용, 1999). 즉 청소년들은 또래관계를 통해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규정하게 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 능력을 학습하게 되며, 친밀감과 상호이해 등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Azmitia, 1988; 임정하, 1996).

3.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또래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 대한 기술습득이나 자아개념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의사소통과 또래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즉 청소년 또래들간의 의사소통은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Perry와 Bussy(1984)가 주장한 것처럼 또래간의 의사소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청소년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고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 경험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또래와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 주는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청소년들을 사회적·인지적으로 성장하게 해준다.

한편 현대사회에서의 스포츠는 전체 사회의 보편적인 사회문화적 제도로 일반화되면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 및 유지기능을 통해 사회제도를 강화시켜 주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스포츠 활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같은 또래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탈자기중심화'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맺게해 준다. 즉 스포츠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또래들과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를 통해 규칙준수, 예절, 협동, 경쟁 등의 기본원리를 학습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사회생활에 필요한 책임성, 자율성, 사교성 등을

체득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의 스포츠 활동은 청소년의 사회화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서로간의 의사소통과 같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응을 도와 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집단적 활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이러한 집단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 및 태도를 지니게 되는데, 대인관계 증진 및 사교성의 향상(Crain, 1984), 인간관계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성향(Sage, 1980), 자신감의 증가와 반사회성의 감소(이완섭, 1981)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은 적절한 사회적·인지적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스포츠 활동과 같은 집단활동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래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이 동료들에게 관심을 끌고, 또래집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우호적으로 그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조사도구
3. 조사절차
4. 자료처리 방법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가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에 관한 내용을 규명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청소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제외)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의 추출은 유층집락무선표집(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의 방법으로 추출하였으며, 표본의 추출절차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표집틀(sampling framework)을 작성한 후 8개의 학교를 무선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시를 강남과 강북으로 구분한 다음 난수표를 이용하여 남자 중·고등학교 1개교씩, 여자 중·고등학교 1개교씩 모두 8개교에서 각 학교별로 2개반 80명씩 총 64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전체 640명 중 설문조사에 참가한 인원은 628명이었으나, 실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614명이었다.

이는 회수된 자료 중에서 거짓 문항과 실제 질문 문항이 불일치하는 자료와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614명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Ⅲ- 1>에 정리된 것과 같다.

<표Ⅲ-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변 인	구분	사례수	백분율
성 별	남	317	51.0	종 교	기독교	263	42.3
	여	297	47.7		카톨릭	42	6.8
교육수준	중	296	47.6		불교	91	14.6
	고	317	51.0		무교	204	32.8
사회계층	상	95	15.3		기타	11	1.8
	중	416	66.9	건강상태	매우 건강	126	20.3
	하	96	15.4		건강	273	43.9
	독자	54	8.7		보통	164	26.4
	장남/장녀	303	48.7		약함	42	6.8
출생서열	차남/차녀	59	9.5		매우 약함	7	1.1
	막내	183	29.4	부모관계	매우 좋음	216	34.7
	기타	13	2.1		좋음	280	45.0
					보통	101	16.2
					나쁨	10	6.0
					매우 나쁨	4	7.0
				학교성적	매우 좋음	24	3.9
					좋음	98	15.8
					보통	328	52.7
					나쁨	124	19.9
					매우 나쁨	16	2.6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에 관한 내용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먼저, 스포츠 활동 참가에 대해서는 김홍설(1992), 김선관(1998), McPherson(1975), Bohern(1978)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중 스포츠 참가와 관련된 내용을 기초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Olson과 Barnes(1982)가 제작한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또래간의 의사소통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또래관계는 Furman(1985)이 제작한 Network of Relationships Inventory(NRI)를 변안한 내용과 김은지(1996)가 표준화한 또래관계 측정 설문 문항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독립변인을 묻는 문항으로, 스포츠활동 참가 유무에 관한 항목 1문항, 스포츠활동 참가 유형에 관한 항목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포츠활동 참가 유형은 인지적 참가, 정의적 참가, 행동적 참가의 세 형태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스포츠 참가 정도는 기간, 빈도, 강도 각각 1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매개변인인 의사소통은 18개의 문항으로, 종속변인인 또래관계를 측정하는 항목도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또래관계를 구성하는 하위변인은 지도성, 경쟁성, 적대감, 자신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III- 2> 설문지의 구성지표와 내용 및 문항수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배경변인	성 별	1
	교육수준	1
	인 구 통계학적 특성변인	1
	사회계층	1
	건강상태	1
	학교성적	1
	부모관계	1
독립변인	스포츠 참여 유무	1
	스포츠 참여 종목	1
	기 간	1
	스포츠 참가 정도	빈 도
	강 도	1
	인지적 참가	15
	스포츠 참가 유형	정의적 참가
	행동적 참가	10
		4
매개변인	의사소통	18
종속변인	또래관계	지도성
		경쟁성
		적대감
		자신감
계		76

따라서 본 설문지의 구성은 위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경변인 6개 문항, 독립변인 34문항, 매개변인 18문항, 종속변인 18문항 등 총 7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구체적인 구성지표와 구성내용은 <표III- 2>와 같으며, 각 변인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 참가 유형

스포츠 참가 유형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1은 인지적 참가 요인으로 고유값이 7.821, 설명비가 27.0%로 나타났으며, 요인2는 정의적 참가로 고유값이 5.032, 설명비가 17.4%로 나타났으며, 요인3은 행동적 참가로 고유값이 3.203, 설명비가 11.0%로 나타났다.

이 세가지 요인이 스포츠 활동 참가를 설명하는 비율은 55.37%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참가 유형 변인은 각 하위변인별로 비교적 안정적인 인자구조(요인 부하값이 모두 .40이상)를 보이고 있다.

<표Ⅲ- 3> 스포츠 참가 유형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문10	<u>.759</u>	4.443E-02	.223
문19	<u>.756</u>	.186	.227
문16	<u>.756</u>	.274	.234
문7	<u>.756</u>	.196	.152
문2	<u>.752</u>	.237	.171
문28	<u>.749</u>	.147	.321
문15	<u>.741</u>	.235	.276
문11	<u>.720</u>	9.797E-02	.251
문1	<u>.699</u>	.169	.176
문6	<u>.660</u>	.274	-4.162E-03
문18	<u>.653</u>	.136	.378
문13	<u>.651</u>	.289	.304
문29	<u>.572</u>	.143	.538
문3	<u>.536</u>	.299	-.278
문26	9.316E-02	<u>.793</u>	8.099E-02
문25	6.599E-02	<u>.772</u>	8.940E-02
문9	.176	<u>.738</u>	.141
문24	7.704E-02	<u>.719</u>	.149
문8	.209	<u>.700</u>	.174
문4	.263	<u>.647</u>	.233
문21	9.811E-02	<u>.594</u>	.120
문5	.268	<u>.567</u>	-.189
문17	.273	<u>.426</u>	.126
문12	.315	<u>.404</u>	.170
문23	.260	.168	<u>.691</u>
문20	.185	7.603E-02	<u>.683</u>
문27	.362	.276	<u>.608</u>
문14	.197	.312	<u>.561</u>
문22	.507	4.989E-02	<u>.505</u>
고 유 값	7.821	5.032	3.203
분 산 의 백 분	26.968	17.353	11.045
울			
누 적 백 분 을	26.698	44.321	55.366

한편 스포츠 참가 유형의 하위요인에 대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Ⅲ- 4>와 같이 인지적 참가, 정의적 참가, 행동적 참가의 신뢰도가 $\alpha = .7636 \sim .9434$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III- 4> 스포츠 참가 유형 측정도구의 신뢰도

변 인	Cronbach's α
인지적 참가	.9434
정의적 참가	.8627
행동적 참가	.7636

2) 또래관계

<표 III- 5> 또래관계에 대한 요인분석

문항내용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문8	<u>.739</u>	3.607E-02	2.428E-02	-5.244E-02
문9	<u>.729</u>	9.921E-02	-4.592E-02	.170
문3	<u>.702</u>	9.939E-02	-5.881E-02	.131
문4	<u>.678</u>	6.526E-02	-5.801E-02	9.548E-02
문12	<u>.497</u>	.196	-.293	.126
문18	8.159E-04	<u>.769</u>	.170	-5.765E-02
문16	3.324E-02	<u>.724</u>	.156	.168
문15	.173	<u>.632</u>	.132	.235
문17	.244	<u>.555</u>	3.427E-02	-.131
문10	5.476E-02	1.503E-02	<u>.704</u>	-.116
문11	-.174	7.063E-02	<u>.640</u>	1.139E-02
문13	-7.659E-02	.276	<u>.627</u>	-.104
문14	-2.548E-02	.231	<u>.581</u>	9.038E-02
문2	-6.275E-02	-4.056E-03	-5.137E-02	<u>.695</u>
문1	.160	.200	-.173	<u>.612</u>
문5	.434	-5.054E-02	7.510E-02	<u>.532</u>
문6	.427	.117	1.840E-02	<u>.479</u>
문7	.318	-4.238E-02	7.899E-02	<u>.406</u>
고 유 값	2.930	2.092	1.849	1.849
분산의 백분율	14.65	10.46	9.24	9.24
누적 백분율	14.65	25.11	34.35	43.60

또래관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위의 <표 III- 5>와 같이 요인1은 지도성 요인으로 고유값이 2.930, 설명비가 14.65%로 나타났다으며, 요인2인 경쟁성은 고유값이 2.092, 설명비가 10.46%로 나

타났다. 또한 요인3인 적대감 요인은 고유값이 1.849, 설명비가 9.24%로 나타났으며, 요인4인 자신감 요인은 고유값이 1.849, 설명비가 9.24%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또래관계를 설명하는 비율은 43.60%로 나타났으며, 또래관계 유형 변인은 각 하위 변인별로 비교적 안정적인 인자구조(요인부하량이 모두 .40 이상)를 보이고 있다.

한편 또래관계의 하위요인에 대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Ⅲ- 6>과 같이 지도성, 경쟁성, 적대감, 자신감의 신뢰도가 $\alpha = .5935 \sim .7517$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Ⅲ- 6>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 측정도구의 신뢰도

변 인		Cronbach's α
의사소통		.8391
또래관계	지도성	.7517
	경쟁성	.6637
	적대감	.5935
	자신감	.6309

3. 조사절차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 형성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에게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에 관한 조사 설문지〉를 배포한 다음 설문 목적과 응답 요령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사전에 설문지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보조 조사원 2명이 표집 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담임 교사의 협조를 받은 다음, 응답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되었으며 설문지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장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4. 자료처리 방법

자료처리는 회수한 설문지를 연구자가 살펴보아 응답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응답률이 낮은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가능한 자료를 컴퓨터에 개별 입력하였다. 입력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하였다.

먼저, 본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잘못된 코딩(coding)에 의한 오류를 수정하였고, 설문지 재구성에 따른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Cronbach's α 값을 통한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공변량분석(analysis of covariance) 그리고 표준중다회귀분석(standard multiple regression) 방법을 적용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IV. 결과 및 논의

이 장에서는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의 연구를 위하여

첫째, 배경변인에 따른 스포츠 참가 정도 및 유형과 의사소통 그리고 또래관계의 차이

둘째,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른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의 차이

셋째, 스포츠 참가 정도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넷째, 스포츠 참가 유형이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다섯째, 청소년의 의사소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순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배경변인에 따른 스포츠 참가 정도 및 유형과 의사소통 그리고 또래관계의 차이

1) 배경변인에 따른 스포츠 참가 정도 및 유형

다음의 <표IV-1>은 배경변인인 성별, 교육수준, 학교성적, 사회계층, 건강상태, 부모관계 등에 따른 스포츠 참가 정도와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F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IV-1>의 결과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스포츠 참가 정도에서는 기간이나 강도면에서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평균

값을 보였으며, 참가 유형에서도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참가에서 모두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인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스포츠 참가 기간이나 강도에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었으며, 참가유형에서는 인지적 참가는 고등학생이 행동적 참가는 중학생이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성적에 대해서는 스포츠 참가 정도나 유형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사회계층에 따라서는 상류층에 속할수록 스포츠 참가 강도의 평균값이 높았으며, 참가 유형에 있어서는 상류층일수록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참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의적 참가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할수록 스포츠 참가 기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스포츠 참가 빈도나 강도에 있어서는 건강이 보통인 학생에 비해 건강한 학생이나 건강하지 못한 학생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스포츠 참가 유형에서는 건강할수록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참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높은 값을 나타냈다. 끝으로 부모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으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 연구에서 설정한 6개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중 학교성적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 따라 스포츠참가 정도 및 유형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설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IV-1> 배경변인에 따른 스포츠 참가 정도 및 참가 유형의 평균, 표준 편차, F검증

배경변인	분류	스포츠 참가 정도									스포츠 참가 유형								
		가간			빈도			강도			인지			정의			행동		
		M	SD	n	M	SD	n	M	SD	n	M	SD	n	M	SD	n	M	SD	n
성별	남	3.53	1.63	147	2.66	.94	148	3.65	.89	149	3.08	.77	298	3.89	.66	306	3.05	.88	308
	여	2.49	1.58	53	2.81	1.08	53	3.13	1.16	53	2.38	.69	284	3.66	.61	283	2.35	.73	290
	F값	16.111***			.904			11.204**			129.362***			18.561***			110.516***		
교육 수준	중	2.94	1.65	104	2.72	1.02	105	3.30	1.06	105	2.65	.76	279	3.70	.64	279	2.74	.84	289
	고	3.59	1.66	95	2.66	.93	95	3.76	.86	96	2.82	.85	302	3.86	.64	309	2.67	.92	308
	F값	7.605***			.191			11.527**			6.320*			1.009			8.775**		
학교 성적	좋은	3.61	1.61	36	3.00	.91	37	3.49	1.07	37	2.85	.87	117	3.77	.71	120	2.62	.89	119
	보통	3.25	1.66	109	2.66	.97	109	3.47	.96	110	2.74	.80	308	3.78	.60	313	2.69	.85	318
	나쁨	3.00	1.76	56	2.57	1.01	56	3.61	1.02	56	2.62	.79	130	3.79	.69	132	2.79	.97	133
사회 계층	상	3.71	1.63	45	2.91	.46	1.03	3.33	1.03	46	3.01	.78	91	3.82	.64	89	2.92	.88	95
	중	3.17	1.67	110	2.62	.93	110	3.46	.92	111	2.73	.80	395	3.79	.60	400	2.66	.87	404
	하	2.90	1.68	42	2.64	1.03	42	3.86	1.05	42	2.55	.82	89	3.75	.81	93	2.72	.90	92
건강 상태	좋은	3.39	1.68	150	2.73	.95	150	3.60	.92	151	2.89	.80	377	3.86	.61	382	2.85	.87	390
	보통	2.97	1.64	35	2.53	1.03	36	3.14	1.15	36	2.49	.74	155	3.70	.63	156	2.46	.80	158
	나쁨	2.53	1.55	15	2.80	1.15	15	3.60	1.18	15	2.39	.82	48	3.44	.76	49	2.36	.95	48
부모 관계	좋은	3.42	1.64	153	2.71	.94	154	3.43	.95	155	2.78	.80	472	3.80	.63	472	2.72	.88	482
	보통	2.77	1.68	39	2.69	1.08	39	3.56	1.10	39	2.56	.81	95	3.72	.64	100	2.66	.88	99
	나쁨	2.50	1.85	8	2.63	1.30	8	3.88	1.36	8	2.73	.88	12	3.60	1.07	14	2.80	1.10	14
	F값	3.242*			.029			.646			2.948			1.300			.239		

* $p < .05$, ** $p < .01$, *** $p < .001$

2) 배경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

다음의 <표 IV-2>는 배경변인인 성별, 교육수준, 학교성적, 사회계층, 건강상태, 부모관계 등에 따른 의사소통과 또래관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F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Ⅳ-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보이고 있으며, 또래관계에 있어서는 지도성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값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수준인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의사소통에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또래관계의 지도성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이 적대감에 있어서는 중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더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의사소통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또래관계에 있어서는 지도성, 경쟁성, 자신감 요인에서 성적이 좋을수록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회계층에 따라서는 또래관계의 자신감 요인에서만 상류층일수록 높은 값을 보이고 있을뿐 의사소통 및 나머지 요인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이 보통인 학생에 비해 건강이 좋거나 나쁜 학생이 의사소통에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또래관계에서는 자신감 요인에서만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관계 역시 부모관계가 보통인 학생에 비해 부모관계가 좋거나 나쁜 학생이 의사소통에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또래관계에 있어서 자신감 요인에서만 부모관계가 좋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 연구에서 설정한

6개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모두에 따라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설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IV-2> 배경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의 평균, 표준편차, F검증

배경변인	분류	의사소통			또래관계											
		M	SD	n	지도성			경쟁성			적대감			자신감		
성 별	남	3.37	.48	299	2.84	.66	311	2.89	.71	316	2.30	.71	311	3.17	.57	311
	여	3.54	.45	280	2.97	.48	292	2.88	.75	295	2.40	.74	292	3.12	.54	293
	F값	20.094***			7.497**			.040			2.527			1.394		
교육 수준	중	3.39	.48	278	2.83	.62	289	2.84	.75	293	2.49	.74	288	3.14	.59	289
	고	3.50	.46	300	2.97	.54	313	2.92	.72	317	2.22	.68	314	3.15	.53	314
	F값	7.752**			7.816**			1.465			21.533***			.061		
학교 성적	상	3.47	.44	116	3.04	.67	120	3.06	.85	122	2.38	.78	120	3.42	.60	120
	중	3.47	.46	312	2.91	.57	323	2.83	.70	325	2.32	.71	323	3.14	.51	322
	하	3.38	.52	129	2.78	.50	138	2.80	.65	140	2.38	.73	137	2.93	.53	138
	F값	2.032			6.020**			5.447**			.538			27.455***		
사회 계층	상	3.50	.49	92	2.96	.74	94	2.95	.83	94	2.44	.72	92	3.29	.60	91
	중	3.46	.46	390	2.91	.53	408	2.89	.71	414	2.34	.72	409	3.14	.52	411
	하	3.37	.51	90	2.82	.62	94	2.80	.71	96	2.30	.75	95	3.06	.63	95
	F값	1.990			1.435			.936			1.032			4.101*		
건강 상태	좋음	3.49	.45	372	2.94	.57	391	2.90	.733	397	2.34	.72	392	3.21	.54	390
	보통	3.36	.50	158	2.83	.61	162	2.80	.71	163	2.32	.73	160	3.00	.57	163
	나쁨	3.43	.53	47	2.82	.58	49	3.02	.77	49	2.50	.72	49	3.09	.61	49
	F값	3.901*			2.761			2.023			1.225			8.865***		
부모 관계	좋음	3.49	.47	470	2.93	.59	486	2.89	.74	493	2.35	.74	488	3.19	.55	488
	보통	3.27	.45	94	2.81	.54	101	2.86	.69	101	2.32	.64	99	3.00	.55	99
	나쁨	3.31	.65	12	2.73	.50	13	2.66	.69	14	2.48	.78	13	2.90	.56	14
	F값	8.883***			2.173			.775			.282			6.150**		

* $p < .05$, ** $p < .01$, *** $p < .001$

2.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른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의 차이

1)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른 의사소통의 차이

다음의 <표Ⅳ-3>은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른 의사소통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Ⅳ-3>에 의하면 주효과가 $F=1.754$ 로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라 의사소통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포츠 참가의 유무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공변인으로 투입한 성별, 교육수준, 학교성적, 사회계층, 건강상태, 부모관계 중 성별, 교육수준, 부모관계, 건강상태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의사소통은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공변인으로 투입한 변인 중 특히 성별과 부모관계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표 IV-3>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른 의사소통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값
공변인	10.378	6	1.730	8.205***
성 별	3.350	1	3.350	15.891***
교육수준	1.960	1	1.960	9.299**
학교성적	.515	1	.515	2.442
사회계층	.183	1	.183	.867
건강상태	1.074	1	1.074	5.094*
부모관계	3.297	1	3.297	15.638***
주효과	.370	1	.370	1.754
운동여부	.370	1	.370	1.754
설명변인	10.748	7	1.535	7.283***
잔 차	112.786	535	.211	
전 체	123.534	542	.228	

* $p < .05$, ** $p < .01$, *** $p < .001$

2)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른 또래관계의 차이

(1)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른 지도성의 차이

다음의 <표 IV-4>는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른 지도성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IV-4>에 의하면 주효과가 $F=26.767$ 로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라 지도성에 대하여 위험률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변인으로 투입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 중 사회계층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활동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활동장

악 능력이나 리더쉽 등이 또래관계의 지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설 2-2 중 지도성 변인에 대해서는 지지되었다.

<표Ⅳ-4>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른 지도성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값
공변인	13.446	6	2.241	7.299***
성 별	1.970	1	1.970	6.418*
교육수준	3.221	1	3.221	10.492**
학교성적	3.981	1	3.981	12.968***
사회계층	.196	1	.196	.639
건강상태	2.784	1	2.784	9.069**
부모관계	1.293	1	1.293	4.211*
주효과	8.217	1	8.217	26.767***
운동여부	8.217	1	8.217	26.767***
설명변인	21.663	7	3.095	10.080***
잔 차	171.614	559	.307	
전 체	193.277	566	.341	

* $p < .05$, ** $p < .01$, *** $p < .001$

(2)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른 경쟁성의 차이

다음의 <표Ⅳ-5>는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른 경쟁성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Ⅳ-5>에 의하면 주효과가 $F=8.266$ 로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라 경쟁성에 대하여 위험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변인으로 투입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중 학교 성적 변인만이 $F=8.829$ 로 위험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 상황에서 요구되는 승리에 대한 강조에 따라 형성된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경쟁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설 2-2 중 경쟁성 변인에 대해서는 지지되었다.

<표 IV-5>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른 경쟁성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값
공변인	5.962	6	.994	1.879
성 별	.035	1	.035	.066
교육수준	.872	1	.872	1.649
학교성적	4.668	1	4.668	8.829**
사회계층	.162	1	.162	.307
건강상태	.001	1	.001	.002
부모관계	.224	1	.224	.423
주효과	4.370	1	4.370	8.266**
운동여부	4.370	1	4.370	8.266**
설명변인	10.333	7	1.476	2.792**
잔 차	298.728	565	.529	
전 체	309.061	572	.540	

* $p < .05$, ** $p < .01$, *** $p < .001$

(3)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른 적대감의 차이

다음의 <표 IV-6>은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른 적대감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IV-6>에 의하면 주효과가 $F=4.70$ 로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라 적대감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변인으로 투입한 배경변인 중 교육수준인 중·고등학교에 따른 하위변인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적대감은 밝혀지지 않은 다른 변인에 의해 변화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설 2-2 중 적대감 변인은 기각되었다.

<표 IV-6>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른 적대감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

변인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값
공변인	13.377	6	2.229	4.266***
성 별	1.606	1	1.606	3.074
교육수준	9.686	1	9.686	18.535***
학교성적	.020	1	.020	.038
사회계층	1.118	1	1.118	2.139
건강상태	.944	1	.944	1.807
부모관계	.003	1	.003	.005
주효과	.246	1	.246	.470
운동여부	.246	1	.246	.470
설명변인	13.622	7	1.946	3.724**
잔 차	291.617	558	.523	
전 체	305.239	565	.540	

* $p < .05$, ** $p < .01$, *** $p < .001$

(4)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른 자신감의 차이

다음의 <표 IV-7>은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른 자신감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IV-7>에 의하면 주효과가 $F=12.818$ 로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라 경쟁성에 대하여 위험률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변인으로 투입한 통계학적 특성 변인 중 학교 성적과 건강상태는 1% 수준에서, 그리고 부모관계는 위험률 5% 수준에서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스포츠활동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도전이나 극복 혹은 자아실현 등이 또래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변인 중 학교성적은 청소년들의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설 2-2 중 자신감 요인은 지지되었다.

<표 IV-7>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른 자신감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값
공변인	20.608	6	3.435	12.519***
성 별	.645	1	.645	2.352
교육수준	.079	1	.079	.288
학교성적	15.842	1	15.842	57.746***
사회계층	.378	1	.378	1.377
건강상태	1.928	1	1.928	7.026**
부모관계	1.76	1	1.736	6.326*
주효과	3.517	1	3.517	12.818***
운동여부	3.517	1	3.517	12.818***
설명변인	24.124	7	3.446	12.562***
잔 차	153.087	558	.274	
전 체	177.211	565	.314	

* $p < .05$, ** $p < .01$, *** $p < .001$

3. 스포츠 참가 정도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스포츠 참가 정도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표 IV-8>에 의하면 스포츠 참가 정도는 의사소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스포츠 참가 기간($\beta=.142$), 강도($\beta=.129$)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포츠 참가정도는 의사소통의 전체 변량 중 약 5% ($R^2=.04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스포츠참가 정도는 참가 유무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밝혀지지 않은 다른 변인에 의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표Ⅳ-8> 스포츠참가 정도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스포츠참가 정도	b	β	t	P
기 간	4.510E-02	.142	1.799	.074
빈 도	9.371E-04	.002	.023	.982
강 도	7.081E-02	.129	1.687	.093
Multiple R	.218			
R square	.048			

2) 스포츠 참가 정도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스포츠 참가 정도가 또래관계의 지도성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표Ⅳ-9>에 의하면 스포츠 참가 정도는 또래관계 중 지도성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스포츠 참가 기간($\beta=.107$)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스포츠 참가 정도는 지도성 요인의 전체 변량 중 약 1.3%($R^2=.013$)의 미미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스포츠참가 유무는 지도성에서 차이를 보이나 스포츠참가 정도는 지도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표 IV-9> 스포츠참가 정도가 또래관계 중 지도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스포츠참가 정도	b	β	t	P
기 간	3.929E-02	.107	1.376	.170
빈 도	1.791E-02	.029	.382	.703
강 도	-1.036E-02	-.017	-.220	.826
Multiple R	.114			
R square	.013			

(2) 스포츠 참가 정도가 또래관계의 경쟁성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표 IV-10>에 의하면 스포츠 참가 정도는 또래관계 중 경쟁성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스포츠 참가 유무는 경쟁성에서 차이를 보이나 스포츠 참가 정도는 경쟁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설 3-3은 기각되었다.

<표 IV-10> 스포츠참가 정도가 또래관계 중 경쟁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스포츠참가 정도	b	β	t	P
기 간	2.599E-02	.058	.752	.453
빈 도	9.209E-03	.012	.161	.872
강 도	-3.266E-02	-.043	-.566	.572
Multiple R	.063			
R square	.004			

(3) 스포츠 참가 정도가 또래관계의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표 IV-11>에 의하면 스포츠 참가 정도는 또래관계 중 스포츠 참가 강도($\beta=-.168$)만이 적대감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포츠 참가 정도는 또래관계 중 적대감 요인의 전체 변량 중 약 4%($R^2=.03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스포츠 참가 정도 중 강도만이 적대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강도가 강할수록 적대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설 3-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IV-11> 스포츠참가 정도가 또래관계 중 적대감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스포츠참가 정도	b	β	t	P
기 간	-1.766E-02	-.041	-.525	.600
빈 도	-2.616E-02	-.035	-.470	.639
강 도	-.125	-.168	-2.218	.028
Multiple R	.198			
R square	.039			

(4) 스포츠 참가 정도가 또래관계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표Ⅳ-12>에 의하면 스포츠 참가 정도는 또래관계 중 자신감 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포츠 참가 정도는 자신감 요인의 전체 변량 중 약 1%($R^2=.010$)의 미미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스포츠 참가 유무는 자신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스포츠 참가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설 3-5는 기각되었다.

<표Ⅳ-12> 스포츠참가 정도가 또래관계 중 자신감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스포츠참가 정도	b	β	t	P
기 간	3.490E-02	.099	1.280	.202
빈 도	5.376E-03	.009	.118	.906
강 도	-1.541E-02	-.026	-.338	.736
Multiple R	.098			
R square	.010			

4. 스포츠 참가 유형이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스포츠 참가 유형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표Ⅳ-13>에 의하면 스포츠 참가 유형 중 정의적 참가자는 의사소통에 위험률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beta=.277$)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포츠 참가 유형은

의사소통의 전체 변량 중 약 7%($R^2=.074$)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정의적 참가는 스포츠 자체에 대한 가치나 태도, 혹은 감정적 성향을 표출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설 4-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IV-13> 스포츠참가 유형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스포츠참가 유형	b	β	t	P
인지적 참가	1.351E-02	-.024	-.414	.679
정의적 참가	.204	.277	5.451	.000
행동적 참가	7.292E-03	.014	.251	.802
Multiple R	.271			
R square	.074			

2) 스포츠 참가 유형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스포츠 참가 유형이 또래관계의 지도성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표 IV-14>에 의하면 스포츠 참가 유형 중 정의적 참가는 지도성 요인에 위험률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21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포츠 참가 유형은 지도성 요인의 전체 변량 중 약 9%($R^2=.086$)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설 4-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IV-14> 스포츠참가 유형이 또래관계 중 지도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스포츠참가 유형	b	β	t	P
인지적 참가	2.325E-02	.033	.587	.558
정의적 참가	.188	.210	4.247	.000
행동적 참가	6.542E-02	.100	1.868	.062
Multiple R	.294			
R square	.086			

(2) 스포츠 참가 유형이 또래관계의 경쟁성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표 IV-15>에 의하면 스포츠 참가 유형 중 정의적 참가가 경쟁성 요인에 위협률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12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포츠 참가 유형은 경쟁성 요인의 전체 변량 중 약 2%($R^2=.022$)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설 4-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IV-15> 스포츠참가 유형이 또래관계 중 경쟁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스포츠참가 유형	b	β	t	P
인지적 참가	1.339E-02	.015	.260	.795
정의적 참가	.142	.124	2.457	.014
행동적 참가	2.403E-02	.029	.526	.599
Multiple R	.150			
R square	.022			

(3) 스포츠 참가 유형이 또래관계의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표IV-16>에 의하면 스포츠 참가 유형 중 정의적 참가는 적대감 요인에 위험률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beta = -.14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포츠 참가 유형은 적대감 요인의 전체 변량 중 약 2%($R^2 = .018$)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설 4-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IV-16> 스포츠참가 유형이 또래관계 중 적대감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스포츠참가 유형	b	β	t	P
인지적 참가	-4.755E-02	-.005	-.092	.927
정의적 참가	-.162	-.142	-2.783	.006
행동적 참가	2.248E-02	-.027	.489	.625
Multiple R	.134			
R square	.018			

(4) 스포츠 참가 유형이 또래관계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표IV-17>에 의하면 스포츠 참가 유형 중 정의적 참가($\beta = .200$)와 행동적 참가($\beta = .137$)는 자신감 요인에 각각 위험률 0.1%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포츠 참가 유형은 자신감 요인의 전체 변량 중 약 10%($R^2 = .099$)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설 4-5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IV-17> 스포츠참가 유형이 또래관계 중 자신감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스포츠참가 유형	b	β	t	P
인지적 참가	2.335E-02	.034	.618	.537
정의적 참가	.172	.200	4.081	.000
행동적 참가	8.743E-02	.137	2.583	.010
Multiple R	.315			
R square	.099			

5. 의사소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다음의 <표 IV-18>에 의하면, 의사소통의 변인은 또래관계 중 경쟁성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변인이 또래관계의 하위변인을 설명하는 비율을 보면 지도성 변인에 대해서는 전체 변량의 약 27.2%($R^2=27.2$)를 설명하고 있으며, 적대감 변인에 대해서는 약 13.0%($R^2=.130$)를 그리고 자신감 변인에 대해서는 전체 변량의 약 9%($R^2=0.92$)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의사소통은 효율적인 인간 상호간의 접촉을 유지시키는 기능에 의해 지도성 변인에 영향을 미치며, 소속감의 획득 또는 관계확인에 의한 안정감 등으로 자신감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대감 변인은 의사소통이 대인관계의 순환적인 과정 및 행동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경쟁성 변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2를 제외한 가설 5-1, 5-3, 5-4는 지지되었다.

<표 IV-18> 의사소통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변 인	지도성		경쟁성		적대감		자신감	
	β	T	β	T	β	T	β	T
의사소통	.521	14.6111***	.062	1.502	-.360	-9.237***	.304	7.639***
설명비율	MR=.521 R ² =.272		MR=.062 R ² =.004		MR=.360 R ² =.130		MR=.304 R ² =.092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61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가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에 따른 스포츠참가 정도 및 유형과 의사소통 그리고 또래관계에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먼저 스포츠 참가 정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그리고 상류층에 속하고 건강할수록 더 높은 평균값을 보이며 스포츠 활동에 더 많이 참가하고 있다.

스포츠 참가 유형에 있어서는 모든 참가 유형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또한 고등학생은 인지적 참가에서 중학생은 행동적 참가에서 그리고 상류층에 속하고 건강할수록 모든 참가 유형에서 높은 평균값을 보이며 스포츠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또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그리고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보다 좋은 경우가, 부모관계 역시 나쁜 경우보다 좋은 경우가 더 높은 평균값을 보이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또래관계에 있어서는 지도성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또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성적이 좋을수록 지도성, 경쟁성, 자신감 요인에서 그리고 상류층에 속하고 건강상태가 좋으며 부모관계가 좋을수록 자신감

요인에서만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둘째, 스포츠참가 유무에 따른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스포츠 참가 유무에 따라 의사소통에는 차이가 없으나 또래관계에 있어서는 하위변인인 적대감을 제외한 지도성, 경쟁성, 자신감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스포츠참가 정도는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포츠참가 정도에 따라 의사소통에는 차이가 없으나 또래관계에 있어서는 하위변인인 지도성, 경쟁성, 자신감을 제외한 적대감 요인에서만 스포츠 참가 정도 중 강도 변인만이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스포츠참가 유형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포츠참가 유형 중 정의적 참가만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정의적 참가만이 지도성, 경쟁성, 적대감, 자신감 요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의사소통은 또래관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사소통은 또래관계의 하위 변인 중 경쟁성을 제외한 지도성, 적대감, 자신감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제 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 경험이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가 전반적인 대인관계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올바른 청소년 교육의 정립에 의의를 두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스포츠참가 유무에 따라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는 차이가 있으며, 스포츠참가 정도 및 유형은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와 결론을 토대로 이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고려하여,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참가 유무, 정도, 유형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의사소통 변인은 스포츠참가 이외의 다른 개인의 내·외적인 상황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스포츠참가 정도를 기간, 빈도, 강도로 분류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분류는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도 자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연속변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설문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 분류가 스포츠참가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재검토와 이에 대한 설문지 표준화 작업을 시도하는 것도 의미있는 과제로 생각되어 진다.

셋째, 스포츠참가 유형은 또래관계의 하위변인인 지도성, 경쟁성, 적대감, 자신감 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스포츠참가 유형 중 정의적 참가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정의적 참가를 제외한 행동적, 인지적 참가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 이는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스포츠활동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입시 부담으로 T·V나 매스컴을 통한 인지적 참가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참가 유형의 분류 자체가 한정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고영복(1977). 현대사회심리학. 서울: 법무사.
- 구본용(1999). 청소년의 또래관계.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36. 한국청소년상담원.
- 구창모(1998). 청소년과 여가스포츠. 태근.
- 김문조(1999). “집단 따돌림 발생의 사회·문화적 접근”. 집단 따돌림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대학교 종합연수원.
- 김삼현(1997). 의사소통기법 훈련이 청소년의 대인관계 개선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관(1998).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또래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우성(1995). 스포츠 조직에 있어 리더쉽 행동유형과 조직 유효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지(1996). 청소년의 기질이 형제관계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택호·김인규(1999). 청소년의 또래관계 실태분석.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36.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홍철(1992). 가족이 운동선수 역할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 손희권, 송혜정(1998). 학생의 왕따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박진규(1999). 청소년 집단 따돌림(왕따) 현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분석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진생(1999). “청소년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영향은 무엇인가?”:
청소년 집단 따돌림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서울가정법
원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
- 방지선(1997). 여성의 생활체육참가와 자아개념 및 신체상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충기 외(1999). 전라북도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전라북도 청소년종합상담실.
- 송미선(1995). 놀이개입 상황에 있어서 유아의 또래지위에 따른
사회적 행동과 의사소통 기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성아(1995). 주부의 생활체육 참가가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
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순근(1994). 스포츠참가와 도덕성 발달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윤 희(1998). 아동의 태권도 수련 수준과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
지향성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영(1997). 또래관계에서 사용하는 유아의 사회적 문제해결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춘재, 박금주(1999).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 특성 및 대
책. 아산사회복지재단.
- 이흥구(1998). 생활체육 참가와 사회연결망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희연(1994). 청소년 또래문화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7
호.
- 이희연(1994). 청소년 또래문화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7호.
한국청소년개발원.

- 임성철(1997). 청소년의 가족스포츠 및 가족캠프 참여가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하(1996).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정하(1996). 아동이 지각한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종호(1993). 스포츠 조직에 있어서의 리더쉽 행동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경섭(1993). 인간관계론. 서울: 법문사.
- 정유미(1997).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송현(1998). 체육조직 구성원의 의사소통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영자(1999).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충욱(1999). “청소년기 왕따 현상의 실태와 대응방향”: 청소년 왕따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서울: 홍사단.
- 하지원(1993). 아동의 스포츠 참가와 사회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종혜(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정규(1992). 한국청소년 문화의 개념과 특성의 계량적 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Azmitiu, M.(1988). Peer interaction and problem solving: When are two heads better than are? *Child Development*, 59.
- Barnes, H. & Olson, D. H.(1982)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scale. In D. Olson, H. I. MaCubbinm H. Barnes; A. Larsen, M. Muxen, & M. Wilson(Eds.), *Family inventories*.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erndt, T. J., & Perry, T. B.(1986). Children's perceptions of friendships as supportive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2(5).
- Bukowski, W. M., & Hoza, B.(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1989). Peer Relationship in Child Development. Now York: Wiley.
- Costin, S. E., & Jones, D. C.(1992). Friendship as a facilitator of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prosocial interventions among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 Csikszentmihalyi, M., & Larson, R.(1984). *Being adolescent*, Basic Books Inc.
- Eidsmore, R. M. (1961). The academic performance of athletes. *School Activities*, 32.
- Furman, W., & Buhrmester, D.(1985). Children's perception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 Hartup, W. W.(1992). *Peer relation in early and middle childhood*.
Handbook of social development. NY: Plenum Press.
- John, A. C.(1978). *Administration of intramural and recreational activities*. John Wiley & Sons Inc.
- McIntosh, P. C.(1966). Mental ability and success in school sport. *Research and Physical Education*, 1(1).
- Perr, D. G., & Bussy, K.(1984). *Social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 Hall.
- Piaget, J.(196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 Sage, G. H.(1980). *Social Development*. In Vern Seefeldt et. Physical Activity & Well-being, American Allia.
- Sereno, K. K., & Bodaken, E. M.(1975). Trans-per understanding human communi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 Start, K. B.(1967). Sporting and intellectual success among English secondary school children.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of Sport*, 10(1).
-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Theodorson, S. A., & Theodorson, A. G.(1969). *A modern dictionary of sociology*. New York: Cassell.
- Yoder, D.(1965). *Personnel manage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부 록

1. 설문조사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학생들의 스포츠 참가와 친구들과의 관계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느끼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묻는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니,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하게 대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서 대 학 교
레저스포츠학과
구창모 교수

1. 다음은 친구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느낌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V" 표 해주세요.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는 다소 무리가 되는 일도 끝까지 하려고 노력한다.					
2	나는 힘에 벅찬 일이라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해결한다.					
3	나는 친구들과 놀 때 자주 대성노릇을 한다.					
4	나는 다른 아이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					
5	나는 스스로 계획하며 자신있게 생활한다.					
6	나는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7	나는 다른 아이에게 게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8	나는 실제로 하는 방법을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지시해도 잘 이해하고 행한다.					
9	내가 어떤 생각을 제안하면 다른 아이들이 나를 따른다.					
10	나는 친구와 사소한 일에도 다투고 싸우는 경우가 많다.					
11	나는 친구들이 보기 싫어 학교에 가기 싫을 때가 있다.					
12	나는 인기가 많다.					
13	나는 친구들이 미워서 친구를 때려주거나 괴롭히고 싶은 때가 있다.					
14	내 물건을 친구가 빌리거나 만지는 것이 매우 싫다.					
15	나는 모든 면에서 친구보다 앞서고 싶다.					
16	나는 친구가 나의 경쟁자로 느껴지곤 한다.					
17	나는 친구와 누가 더 잘하는지를 가지고 내기 걸기를 좋아한다.					
18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을 때는 매우 화가 난다.					

II. 다음의 문항들은 귀하가 친구들과 얼마나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1	그 렇 지 않 다 2	보 통 이 다 3	그 렇 다 4	매 우 그 렇 다 5
1	나는 주저함 없이 나의 주장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2	나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기가 어렵다.					
3	친구들은 항상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					
4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친구들에게 요구하기가 부담스럽다.					
5	친구들은 나에게 물어 보지도 않고서 나의 느낌이 어떤가를 아는 경우가 많다.					
6	나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방식에 매우 만족한다.					
7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8	나는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애정을 표현하는 편이다.					
9	나는 친구들과 문제가 생기면 가급적 말하지 않는 편이다.					
10	나는 친구들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11	친구들은 나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주는 편이다.					
12	친구들은 나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3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화제가 많은 편이다.					
14	나는 친구들과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의논을 자주하는 편이다.					
15	나의 솔직한 심정을 친구들에게 표현하기가 쉽다.					
16	친구들은 나를 귀찮게 하는 편이다.					
17	친구들은 나에게 자주 모욕감을 주는 편이다.					
18	어떤 것에 대하여 내가 느끼는 바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Ⅲ. 다음의 문항들은 여러분의 스포츠 참가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깊게 읽으신 후 주어진 문항에 대하여 여러분이 동의하는 정도를 해당번호에 “V”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 용	전 그 렇 지 않 다 1	그 렇 지 않 다 2	보 통 이 다 3	그 렇 다 4	매 우 그 렇 다 5
1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면 스포츠에 관해서는 내가 가장 많이 하는 편이다.					
2	나는 신문이나 TV,라디오에서 운동 및 스포츠 경기에 관한 광고는 눈여겨 보고 귀담아 듣는 편이다.					
3	나는 친구들이 스포츠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 잘 몰라서 소외감을 느낀다.					
4	나는 여가시간에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한다.					
5	나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왠지 싫은 느낌을 가진다.					
6	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규칙이나 전략을 잘 몰라서 편견하기가 쉽다.					
7	나는 신문이나 잡지의 스포츠 기사를 철저히 읽는 편이다.					
8	나는 스포츠 활동이 우리의 생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	나는 시간과 여건이 되면 스포츠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싶다.					
10	나는 TV에서 스포츠를 시청할 때 해설자가 필요없을 만큼 그 내용을 잘 안다.					

번호	내 용	전 혀 그렇지 않 다 1	그렇지 않 다 2	보 통 이 다 3	그렇다 4	매 우 그렇다 5
11	나는 스포츠 일간지를 즐겨 읽는 편이다.					
12	나는 소질이 있다면 내 자녀가 운동 선수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13	나는 TV에서 좋아하는 스포츠의 중계는 대부분 보는 편이다.					
14	나는 우리 집에 한두 가지 운동에 필요한 용구를 갖추어 놓고 가끔 운동을 하거나, 시설없이도 운동을 한다.					
15	나는 스포츠 경기를 관전하면 경수 뿐만 아니라, 게임의 내용도 잘 이해하는 편이다.					
16	다른 사람과 스포츠경기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 즐거운 일이다.					
17	나는 앞으로 나의 자식이 운동을 하겠다면 적극적으로 권장, 지원하겠다.					
18	나는 TV프로 중 스포츠 중계를 가장 좋아한다.					
19	나는 스포츠 경기를 잘 알기 때문에 경기를 관전하는데 지장이 없다.					
20	나는 가끔 조기운동에 참가한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 이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21	나는 스포츠란 어떤 단체이든지 협동심과 단결심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22	나는 틈이 나면 스포츠 경기를 관 람하러 간다					
23	나는 하루에 최소한 30분-1시간 정도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편이 다.					
24	나는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데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 다고 생각한다.					
25	스포츠 활동이란 정신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26	나는 스포츠 활동이 건강을 회복 하거나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27	나는 1주일에 한두 번은 스포츠 활동에 참가를 하는 편이다.					
28	나는 운동 및 스포츠 경기의 규칙 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는 많 이 아는 편이다.					
29	나는 공휴일에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거나 직접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기도 한다.					

Ⅳ. 아래의 문항들은 귀하께서 주로 하고 계신 스포츠 활동
참가 및 개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세히 읽으시고 해당하
는 난에 “V” 표시나 답을 직접 기입하여 주십시오.

문 1. 귀하의 성별은?

1) 남 자

2) 여 자

문 2. 귀하의 소속은?

1) 중학생

2) 고등학생

문 3. 귀하의 가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류층

2) 중상류층

3) 중류층

4) 중하류층

5) 하류층

문 4. 귀하는 다음의 출생서열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독 자

2) 장남/장녀

3) 차남/차녀

4) 막 내

5) 기 타

문 5. 귀하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직접 적어 주십시오.

(

)

문 6. 귀하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편입니까?

1) 매우 좋은 편

2) 좋은 편

3) 보 통

4) 나쁜 편

5) 매우 나쁜 편

문 7. 귀하의 종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기독교

2) 카톨릭교

3) 불 교

4) 무 교

5) 기 타

문 8. 귀하의 건강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매우 건강한 편

2) 건강한 편

3) 보 통

4) 약한 편

5) 매우 약한 편

문 9. 귀하의 학교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매우 좋음

2) 중 음

3) 보 통

4) 나쁨

5) 매우 나쁨

문 10. 귀하는 현재 꾸준히 참여하는 운동이 있습니까?

1) 있 다

2) 없 다

